

다윗, 벼랑 끝에 선 왕

* 6/14(월) 사무엘상 ⑥ 21–22장 / 시 59, 56, 34, 52편

사무엘 1–7장	사울 8–15장	사울과 다윗 16–31장
사무엘의 출생 및 성장 1–3장 여호와의 언약궤와 전쟁 4:1–11 엘리 가문의 몰락 4:12–22 언약궤의 행방 5:1–7:2a 회개와 부흥, 예벤에셀 7:2b–14 사사 사무엘의 활동 7:15–17	사무엘의 아들들 8:1–3 이스라엘의 왕정 요구, 여호와의 응답 8:4–22 이스라엘의 왕 사울 9–11장 사무엘의 고별사 12장 사울의 통치 13–15장	다윗의 등장 16장 다윗과 골리앗 17장 다윗과 요나단 18:1–5 ▶ 사울의 폭주, 다윗의 도피 18:6–30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· 사울의 다윗 살해 음모·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· 아들람 굴로 도피한 다윗· 사울의 높 제사장 학살 사건· 광야로 도피한 다윗· 엔게디 굴 사울을 살려 준 다윗· 사무엘의 죽음· 하길라 산 사울을 살려 준 다윗· 블레셋으로 도피한 다윗 죽음, 사울 가문의 몰락 31장

Before 출치며 읽기

벼랑 끝에서
역사하시는 하나님을
묵상하며 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내가 처한
<벼랑의 끝>에서
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

요나단과 헤어지고, 일말의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

다윗은 빨길이 닿는 대로 높으로 달려갑니다.

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.

• 만남 I. 떡과 칼 : 제사장 아히멜렉

아히멜렉은 아히둡의 아들이자, 엘리의 증손자입니다(14:3).

다윗은 그에게 자신의 처지를 숨기고,

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‘거짓말’을 합니다.

떡(bread)과 칼을 얻습니다.

주린 배와 빈 손을 성소에서 채웁니다.

주님은 <떡>이십니다.

찢겨진 빵(broken bread)이 되어 우리를 먹이셨습니다

(마 26:26, 막 14:22, 뉘 22:19, 고전 11:23–24).

주님의 말씀은 <칼>입니다.

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

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(히 4:12).

부리나케 도망친 다윗이 <거룩>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.

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.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
두란노 HOW주석

통성경 길라잡이

다윗: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

• 만남Ⅱ. 꽃과 칼 : 아돌람 굴의 사람들

다윗이 이번에는 아돌람 굴로 도망합니다.

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,

다윗의 가족들, 환난 당한 자, 빚진 자,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.

서로에게 ‘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’가 되었습니다. <꽃>이 되었습니다.

홀로 이스라엘 서쪽의 블레셋에서 도망 나온 다윗이,

400여명의 신진 세력들과 함께 이스라엘 동쪽의 모압으로 피신합니다.

그러나,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.

그 말씀을 따라 함께 갑니다(22:5). 높을 향해 오는 사울의 매서운 칼날을 피하게 하셨습니다.

위험천만한 사울의 땅 유다가 ‘피난처’가 되게 하셨습니다.

• 만남Ⅲ. 혀와 칼 : 사울의 신하 도엑

다윗이 높에 방문한 그날, 그곳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.

그는 악하고 계산적인 사람입니다. 사울이 신하들을 향해 다윗의 공모자들이라 노발대발할 때, 바로 그때, 도엑은 그날의 일을 일러바칩니다(22:8-10).

사울의 신하들은 제사장 학살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.

왕의 명에 불복하더라도,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들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.

하지만 극악무도한 도엑은 그 명령에 지체 없이 착수합니다.

그의 혀에 의해,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. 그는 ‘혀에 칼을 문 자’입니다(시 52:2, 4).

대학살 사건을 들은 다윗의 가슴이 미어터집니다.

늘 그랬듯이, 불같이 터져 나오는 분노를 기도로 바꾸어 하늘의 문을 엽니다(시 52).

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의 외면을, 시편은 그의 이야기의 내면을 보여줍니다.

사울의 딸 미갈과 함께 사는 집에 사울이 암살단을 보내어 다윗의 생명을 노렸을 때,

그는 환난 날에 ‘피난처’ 되시는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(19:11, 시 59:16-17).

가드에서 잡혔을 때는 “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” 확신합니다(시 56:4, 11)

다윗의 ‘거짓말’이 쓰라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

다윗의 삶 전체가 이상적인 삶은 아닙니다. ‘사실 그대로의 삶’입니다.

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.

지금 그는 공공의 적입니다.

벼랑 끝에 선 다윗, 그곳에서 그의 영성이 빛을 발합니다.

벼랑 끝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.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성이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.

“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.

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(마 5:3, 메시지성경). ”